

# 함평군 재정관리 부실로 기부금 반환 초유의 사태

출향 기업인 ‘가로수길 조성’ 1억원 기부 무산

담당 공무원 징계 예고…행정 신뢰도 ‘치명타’

함평군이 ‘손불방조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출향 기업인의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로 기부금 반환과 관련 공무원 징계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일로 군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졌고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향 기업인 김모 씨가 손불면 방조제 도로에 겹벚꽃 나무 식재를 위해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우선 5000만원이 입금된 본인 명의 통장을 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은 기증패 수여식을 하고 통장은 업무 담당인 산림공원과장에게 이관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산림공원과장은 김 씨에게 “방조제 도로 완공 시기에 맞춰 이식할 수 있도록 묘목 1000주를 조정업자에게 사전 구매해 식재하고 군에서 관리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씨는 협의를 거쳐 군에 보관하던 통장을

돌려받아 조정업자에게 4632만 원을 입금했다. 같은 시기 산림과장은 묘목 식재 현장에서 손불면장과 손불면이장단을 초대해 별도의 기부 감사 행사를 열고 묘목 관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식재된 묘목은 계약서상의 크기와 다르게 일부가 고사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수개월간의 분쟁 끝에 김 씨는 지난 11월 산림공원과장에게 묘목 구입 비용을 돌려받으면서, 기부금 집행은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기부증패 수여식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협조 차원의 절차였으며, 기부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전달했기에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은 산림공원과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과 지역민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대가발령 조처됐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 차원의 기부금 관리부실과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

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의 함평군수는 기부자 김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군수는 김 씨와의 카카오톡에서 “김 회장님의 고한 사랑하는 마음에 누가 된 직원들의 불찰로 직원 징계까지 이르게 된 점도 확인되었고, 기부자의 의사와 연관 없는 묘목 구입부터 제반 사항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이번 기부는 원인 무효하고 앞으로 기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함평군 회계 규정에 합당한 계좌에 예치되어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함평을 한 주민은 “현직 사무관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지역 행정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기부 무산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부금 반환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투명한 행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 한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직원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준수와 회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 신광면 월암리 함평생태공원 인근에 김 씨의 기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이 걸린 도로 건너편 부지에 손불방조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쓸 묘목을 식재했다.

## 장흥군 농축산부 ‘천연물 산업 육성 지구’ 선정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육성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 지구’로 선정됐다.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로 장흥을 삼산리의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흥군은 기존 천연물 자원, 연구 기반 활용도, 사업화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로 지정받았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국비 기반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평가 가점, 지자체 소유 시설·부지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핵심 거점으로 선정된 장흥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기존 자산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시제품 개발에서 실증·사업화·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지역 기업들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던 연구·개발·평가 절차를 인근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산업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장흥군은 기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이 보유한 천연물 연구 역량과 인프라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기반을 적극 활용해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7일 공설운동장

화순군이 7일 오전 8시부터 ‘2025 제22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하프, 10km, 5km 세 종목에 총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출발시간은 하프 8시 30분, 10km 8시 40분, 5km 8시 50분이다.

모든 코스는 공설운동장 후문에서 출발한다. 5km 코스는 행우메디칼 지점, 10km 코스는 KTR연구소 지점, 하프 코스는 백암리, 원지교를 거쳐 남

정리 지점에서 반환한다. 대회 당일 공설운동장에서 남정리 반환 지점까지의 코스와 인근 마을 진입로, 순환도로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시행된다.

조형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대회의 안전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안내 인력배치와 현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 9월 9일 나주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들애찬한우부터 반려산업까지…나주 축산업 대전환

브랜드 육성·환경·방역 각종 정책

축산 경쟁력 높이고 선도도시 도약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축산업 전 분야에서 구조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축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명품화,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 30개월 이상 가축전염병 미발생 유지 방역 체계, 전남 최초 악취 개선사업 3년 연속 선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주들애찬한우’는 전남 최대 한우 사육지인데

도 자체 브랜드가 없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다. 덕분에 사골곰탕의 뉴질랜드 첫 수출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연계 판촉, 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 마케팅도 병행하며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영산강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되며 반려문화·산업·관광을 아우르는 미래 전략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복합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첫 삽을 뜨게 된다.

30개월 넘게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이끈 나주시는 24시간 방역체계, 통제초소

운영, 드론 소독 등 현장 중심 대응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남도 동물방역위생 시책평가 대상·최우수상 등을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서도 전남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됐고, 조사료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을 통해 사료비 절감과 지역 자금 기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축산정책은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브랜드 육성부터 산업·방역·환경 분야까지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시 3·4분기 청년 활력소득 지급 완료

874명에 30만원 나주시사랑상품권

나주시가 청년들의 공공활동 참여와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의 올해 3·4분기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청년 활력소득은 지역 행사 참여, 봉사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책홍보,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사회 공공기여 활동을 수행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여형 지원사업이다.

올해 3분기에는 495명, 4분기에는 37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총 874명의 청년에게 모바일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들은 1년 이상 나주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활동 실적 제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나주시가 3분기 지급 대상자 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는 사업 참여 응답자 331명 중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청년 활력소득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경제적 여유 확대, 자기 계발 기회 증가, 지역 소속감 향상, 정서적 안정감 증대 등 다양한 효과도 드러났다.

시장 관심도는 응답자의 89%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지역 정착 의사 역시 84%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김한중 장성군수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인증 획득

장성군이 운영 중인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광주시 북구 삼소로 2)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사업장 운영 체계, 먹거리 안전성 관리, 생산자 조직화, 지역 농산물 취급률 등을 농축식품부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지역상생구조 구축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농약 안전성 검사와 철저한 판매기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785 농가와 출하 약정으로 체결했다. 현재 총 4319개 품

목의 농특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직매장 2층에 문을 연 농가 레스토랑 ‘장성향상’의 인기도 꾸준하다.

장성산 먹거리로 만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점 100일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로컬푸드 팝업’, ‘쿠킹 클래스’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신규 인증을 계기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중소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선사하는 전남 대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장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